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5 팩스 / 512-1225

온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할 『정직·절제·사랑』 실천 운동

도세, 교량붕괴, 장교탈영... 사회를 온통 어지럽게 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사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교파를 초월한 범 기독교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즉 한 국병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제반 사회 모순의 돌출은 단순한 일과성의 사회 병리현상으로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임옥 목사)는 작년 10월 2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천운동본부(본부장 임옥 목사)를 발족시켰다. 이 운동은 정직, 절제, 사랑 등 세 개의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 각 위원회 별로 지침과 실천사항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한국 사회의 영적 대각성운동

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새해 첫 주일인 1월 1일 전국 교회로 확산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순결서약식을 주관하여 절제운동에 앞장선 바 있다.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 본부』에서는 1월 16일(월) 오후 3시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I부 예배 후 실천운동의 취지와 지침을 발표한다. 결의대회에서 발표될 이 운동의 취지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정직운동

1) 취지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거짓과 부정이다. 양심과 정직이 마비된 이 나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몸에 배인 거짓과 부정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에 제시되는 정직지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 지침

- ① 거짓과 부정의 죄를 회개한다.
- ②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교회와 신학교가 정직운동에 모범이 되도록 한다.
- ③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한다.
- ④ 부동산 투기 근절, 세계개혁 등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통념이 근절되도록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⑥ 세무비리, 건설비리 등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앞장선다.
- ⑦ 행정의 공정화, 규제완화, 시민참여, 지방분권화 등을 실현하여 공무원 비리근절에 힘쓴다.
- ⑧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법과 질서 지키는 운동에 앞장선다.

■ 절제운동

1) 취지

사치, 과소비 그리고 혼전 성행위는 죄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삶은 경건과 이웃사랑의 필수적 조건이며, 환경과 자원을 보전하는 길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다음에 제시되는 지침을 성실히 지키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의 역할을 바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지침

- ① 사치와 허영의 죄를 회개한다.
- ② 사치품은 배격하고 의복은 검소하게, 일용품은 절약한다.
- ③ 식사는 간소하게 하고 음식은 남기지 않는다.

- ④ 소형차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여객기 1등칸은 타지 않는다.
- ⑤ 가급적 작은 집에서 살기 운동을 전개한다.
- ⑥ 혼수를 최소화하고 기독교인 신랑은 가급적 혼수를 받지 않도록 하며,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고, 경조사에 화환은 삼가며, 청첩장을 남발하지 않는다.
- ⑦ 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이용을 삼간다.
- ⑧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골프를 삼간다.
- ⑨ 미혼자들은 반드시 혼전 순결을 지킨다.
- ⑩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⑪ 교회 예산은 검소하게 운영하고 교회의 모든 의식은 간소하게 한다.

■ 사랑운동

1) 취지

오늘 우리 사회는 심한 병을 앓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때문이다. 사랑의 실천 없이 인간의 흐뭇한 교통과 친교가 있을 수 없으며 인간은 거칠고 메마르게 된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입법과 공의로운 통치력이 확립되어야 하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국민의 마음이 화(和)해야 한다. 즉 생활의 각 부문에 누룩을 섞어야 하며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최소한 다음의 지침부터 성실히 지키므로 사랑실천운동을 확산해 가야 한다.

2) 지침

- ① 이기주의와 탐욕의 죄를 회개한다.
- ② 국내외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한다.
- ③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④ 한 교회가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돕는다.
- ⑤ 헌혈운동과 장기 기증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⑥ 사랑의 나눔 실천운동을 위해 교회 예산의 십일조 이상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⑦ 북한 동포 돕기와 북한 재산권 포기 운동을 전개한다.
- ⑧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도록 교회가 앞장선다.

지상강단

오늘의 위기와 교회의 사명(II)

■.....이글은 지난 11월 17일 아세아방송국 제주 본부 주최 이종윤 목사 초청 방송세미나에서 강연한 것을 발췌, 요약한 것으로 두 주에 걸쳐 게재한다 ... ■

차례

서언

I. 역사적 사건이 주는 도전과 교회의 사명

- ① 1789년 불란서혁명
- ② 1848년 공산당 혁명
- ③ 16세기 문예부흥운동
- ④ 1976년 방콕선언
- ⑤ 현실참여문제

II. 회복해야 할 교회의 사명

- ① 종교개혁 정신의 재발견
- ② 예언자 정신과 사도정신의 재발견
- ③ 한 몸된 교회관 회복

III. 우리의 응전 -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

- ① 선교의 모델 - 그리스도의 성육신
- ② 선교의 대가 - 그리스도의 십자가
- ③ 선교의 목적 - 그리스도의 부활
- ④ 선교의 영광 - 그리스도의 승천
- ⑤ 선교의 긴급성 - 그리스도의 재림

결언

이 사회에 닥친 모든 위기와 역사적 사건이 주는 도전에 교회는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요?

III. 우리의 응전 -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 부활, 승천과 재림 등을 통해 선교과제와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① 선교의 모델 - 그리스도의 성육신
우리에겐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고, 학교 교육도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모델로 삼을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섬기기 위해 이와 같이 낮아지신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② 선교의 대가 - 그리스도의 십자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자기부정이요 죽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③ 선교의 목적 -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선교의 영광 -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빌2:11).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교회의 명예를 구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도록 선교의 모든 결과와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교의 힘은 돈이나 인력이나 선교사 개인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성령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⑤ 선교의 긴급성 -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사실이 선교가 시급한 일임을 깨우쳐 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면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힘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중에 아무도 내일을 내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전선에 앞장서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결언

① 개혁주의 신앙의 회복

오늘의 위기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을 확산해 가야 합니다. 급진주의적인 신학사

상이 몰밀듯이 밀려오는 차체에, 한국교회는 이제 양적 팽창에만 관심을 가지는 유아기적 단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중심의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② 기독교 가치관의 정립과 기독교 문화의 확산

나아가 기독교 가치관을 정립하고 기독교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고급가치와 하급가치가 전도된 오늘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랑과 지식, 평화와 지혜 등 고급가치가 교회를 통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된다고 하니 이제 그 영향력이 사회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종교윤리과목을 강의하고, 순결서약식을 통해 사회정화에 기여하며,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어 재범율을 줄이는 등의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 바른 문화와 가치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단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줄이는 일에 솔선하여 공동체 문화형성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바른 역할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③ 교회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우리 자신과 교회의 내실화입니다. 성숙한 교회로서 21세기를 향하여 갈 수 있으려면 외형적 성장만큼 내적인 성숙도 따르도록 부단히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쳐 복종시킴으로써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고 이 민족 사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

✧ 순례자 컬럼 ✧

『순결서약 운동』 확산되어야

지난 정초, 우리교회에서는 322명의 청소년들이 결혼 전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다. 청소년들의 순결서약은 자신과 가정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 일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경향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 확산되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미래 지도자들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새 해, 새 날, 새 결심

▶ 산상수련회 스케치

일꾼 삼으신 주님께 쓰임받기를

최 형 렬 (집사, 1교구)

새로운 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맞이하기 위한 산상수련회가 지난 6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 50분 후에 도착했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와 아름다운 수양관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우리교회도 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기도원도 지어야 할텐데 ...'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개회예배는 베드로전서 1장 3 ~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노회장 권용평 목사님이 「산소망」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셨다.

이번 수련회는 강남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했으므로 점심시간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었다.

마침 수련회장에 오신 파키스탄의 우딘 목사님을 통해 파키스탄 교회의 현황을 듣고 복음화를 위한 기도요청을 받았다.

「청지기의 사명과 축복」이라는 주제의 제 I강의는 고린도전서 4장 1 ~ 5절 말씀으로 이종운 목사님이 봉사의 원리와 필요성, 그리고 사명에 대해 강의를 해 주셨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자원하는 마음과 절제의 마음으로 균형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는 자세로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곽선희 목사님의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로 진행된 제 II강의에서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지적하실 때에 각자의 교회봉사 자세에 대한 반성과 교회의 진정한 성숙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큰 도전을 받았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힘차게 찬송하며 산을 내려왔다.

▶ 청지기수련회에 참가하시고

섬기러 오신 주님처럼

박 연 순 (집사, 10교구)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아쉬울 것밖에 없는 나에게 다시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새롭게 펼쳐지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했다. 기도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꿰어오르는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 가까이 있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말씀의 연구도 해야 할 텐데 마음만 조급했다. 세세한 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로 새해도 며칠이 훌쩍 흘러버린 차에 청지기 수련회를 통한 말씀이 도전과 큰 힘이 되었다.

생명을 얻기 위해 기꺼이 많은 사람의 종이 된 주님과 사도들처럼,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봉사자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전심으로 섬기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배우고 따르는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기를 간구하였다.

▶ 산상수련회에서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

김 정 회 (집사, 11교구)

'94년 한 해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던가?, '혹시 사람들의 거침들은 아니었던가?', '좀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새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며 여러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으며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번 산상수련회에서 막연하게 결심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교만, 비판적인 태도, 행함없는 믿음, 지성적 교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인의 쓰임에 합당치 못했던 부끄러운 그릇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없이 내뱉는 무책임한 말과 행동, 자기 우월감, 율법주의적 태도 등이 형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화합을 깨뜨리며 결국은 교회 성장의 방해요소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신령일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의 마음은 무더운 여름에 한줄기 소낙비를 만난듯 후련하기만 하였습니다. 저의 나약한 의지조차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95청지기수련회 「헌신된 청지기와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된 청지기수련회를 통해 직분자들은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올 한 해 동안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교구일꾼 수칙

- '95 청지기수련회 둘째날 강의 <지역장, 권찰, 다락방장의 임무> 중에서 -

1. 교구 일꾼은 다락방의 지도자이며 봉사자이다.
2. 교구 일꾼은 매주(수) 다락방장 모임과 다락방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3. 교구 일꾼은 시간을 존중하여 심방을 신속히 하며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
4. 교구 일꾼은 영적 생활에 힘써 다락방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5. 교구 일꾼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의무를 다해야 한다.
6. 교구 일꾼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7. 교구 일꾼은 교우들의 사사로운 일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8. 교구 일꾼은 다락방원들과의 금전 거래를 삼가고 흠이 없어야 한다.
9. 교구 일꾼은 항상 다락방원들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
10. 교구 일꾼은 비전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정직·절제·사랑』 실천 결의대회

16일(월)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직·절제·사랑 운동」 실천 결의대회가 16일(월) 오후 3시, 종로 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직과 절제와 사랑을 숭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도덕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교회 전체가 한 몸된 의식을 갖고 사회 각 분야에 정직, 절제, 사랑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 날 1부 예배는 정진경 목사의 사회로 임 옥 목사가 설교를, 환경직 목사가 축사를 한다. 이어 결의대회에서는 정직분과(위원장:김명혁), 절제분과(위원장: 손봉호), 사랑분과(위원장: 이종윤) 등 각 분과별로 이 운동의 취지와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 운동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전도회 임직원들과 제직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빌립보서를 공부합시다!!

12시 45분부터, 2층 예배실에서

지난 주일에 개교한 장년부에서는 빌립보서를 공부한다. 강의는 주일 II부 예배가 마친 후 12시 45분부터 1시 30분까지 2층 예배실에서 가지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사는 박형용 목사이다.



1월 학습, 세례식

25일(수) I, II 예배 시

1995년도 첫 학습·세례식이 25일 수요일 I, II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3일(월) 오후 7시 4층에서, 문답은 24일(화) 오후 7시 3층에서 한다.

새가족 환영회

29일(주일) 찬양 예배 시

새가족부에서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환영회를 가진다. 새가족들이 좀 더 많은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 예전에는 평일에 하던 환영회를 주일에 하기로 하였다.

작년 10, 11, 12월과 올해 1월에 등록된 새가족이 모두 모여 서울교회 성도된 기쁨을 맞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1세기를 준비하는 기독교청년인」

청년부 제2회 겨울 수련회

19일(목) ~ 21(토), 4층 집회실에서

청년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기독교청년인」이라는 주제로 제 2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다. 19일(목)과 20일(금) 양일간은 저녁 7시부터, 21일(토)에는 오후 3시부터 4층 집회실에서 갖는 이번 수련회는 신앙관(이종윤 목사), 역사관(이만열 전도사), 직업관(방성기 목사) 등 세 차례에 걸친 특강과 조별 토의, 기도회, 인간관계 훈련, 애찬식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쓰레기 분리 처리**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전국의 쓰레기 양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주일 저녁에 몇몇 사람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뤄야 합니다.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버리는**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주일에 각 부서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오고, 주문 도시락의 경우는 깨끗이 사용한 후 주문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교회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사무국 -

② **주차질서** - 교회 앞과 지하 주차장은 새가족과 장애인에게 양보하고 차량관리위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화단이나 건물에 있는 곳에서는 정면주차하여 건물이나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차 시간을 고려하여 예배에 늦지 않도록 5분 일찍 출발합니다.

주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주차장은 대남빌딩 주차장, 제일은행 주차장, 중소기업은행 주차장, 한일증권 주차장, 삼성가전 주차장, 초당주차장, 대원주차장, 보람은행 주차장, 교회 주차장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종일 교회에 계시는 분은 길 건너편에 있는 대남빌딩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차량관리부 -

교우 소식

임중수 집사는 지난 14일 서초동에 서울음향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개업예배를 드렸다. (서울음향 주식회사 ☎ 525 - 7432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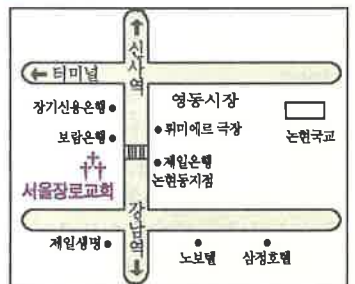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이방송(HLAZ 1566KHz) 「주일철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정직·절제·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2.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각종 수련회를 통해 결단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4. 교회의 청소년들이 천국시민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옵소서